

# 상반기 전남 어업 생산량 22% 늘어 135만

### 미역·김·다시마 등 양식 해조류 증가 원인

### 생산액도 전년보다 2643억 증가 1조3439억

올해 상반기 전남 수산물 생산량이 2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전남 어업 생산량은 135만t으로 지난해 상반기 111만t보다 24만t(21.6%) 늘었다. 생산액도 1조343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796억원)보다 2643억 원(24.4%)이 증가했다.

어업별 생산액은 어선어업 3369억원, 양식어업 9285억원, 내수면어업 785억원이다. 전국 어업 생산량은 202만t으로 지난해(177만t)보다 25만t(14.8%) 늘었다. 생산액은 3조4363억원으로 4190억원(13.8%) 증가했다. 이는 원양어업을 제외한 것이다. 전남 어업 생산량 증가는 주요 양식 품

종인 해조류 시설 면적 확대와 적정한 해양 유지 등 영향으로 분석됐다. 품종별 생산량은 미역 56만7000t, 다시마 31만7000t, 김 31만1000t, 굴 3만6000t, 톳 2만8000t, 홍합류 1만3000t, 멸치류 1만1000t, 전복류 7000t, 넙치류 7000t 등 순이다. 생산액은 김 3566억원, 전복류 2492억원, 넙치류 958억원, 미역류 727억원, 낙지류 690억원, 다시마류 556억원, 병어류 300억원, 굴류 213억원, 멸치 187억원, 조피볼락류 180억원 순이다. 미역(11만4000t), 김(3만7000t), 다시마(4만1000t) 등 주요 품목이 모두 증가했다.

전복도 시설 확대와 다시마·미역 등 원활한 먹이 공급으로 생산량이 1200t(23%) 늘었다. 어선어업도 멸치 3000t, 병어 600t 등 어획량이 증가했고, 내수면어업의 주요 품종인 뽕자어 생산량이 300t 늘어난 2889t으로 지난해보다 14% 증가했다.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하반기에 김, 미역 등 해조류가 본격 생산되면 연말까지 수산물 생산액은 2조5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라며 “유망 양식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2020년까지 3조원 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학생들 취·창업 상담 조선대일자리센터 개소 30일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에 문을 연 대학일자리센터를 찾은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와 취·창업 상담을 받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도시공원 일몰제 민관 거버넌스협의체 본격 가동

### 중앙·중외·일곡 국비지원 건의 검토

### 25곳 보존·조성·개발 방안 등 논의

장기 미집행 도시 근린공원 일몰제 대비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가 30일 첫 회의를 하고 본격 가동됐다. 이날 회의에는 시민단체와 전문가, 시의회, 관계 공무원 등 16명이 참여해 미집행 도시공원 25곳의 특성별 현황을 검토하고, 세부적인 자료를 통해 보존·조성·개발 방안을 논의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자체가 도시공원

등으로 지정한 녹지를 20년 이상 개발하지 않으면 2020년부터는 용도를 해제해야 한다. 광주시는 장기 미집행공원 25곳 중 10곳에 대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적용해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날 회의에서 1단계 사업으로 제안서를 접수하고 있는 수량, 마름 등 4개 공원의 현황을 살펴보고, 2단계 사업

으로 추진되는 6개 공원의 시행방법을 보완하는 문제 등을 논의했다. 또 중앙, 중외, 일곡 등 대형공원의 경우 국비지원을 건의하거나 LH, 도시공사 등과 협약을 하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에서는 연말까지 일몰제 대상 전체 25개 공원에 대한 보존·조성·개발 등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게 된다. 광주지역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를 모두 매입할 경우 2조7000억원의 재정 투입을 필요로 하는 만큼, 이를 최소화할 수 있

는 방안과 함께 1단계 사업제안서 심사 및 협상대상자 선정도 함께 검토한다. 또 미집행 도시공원 해제 검토 및 의견 협의, 도시공원 존속을 위한 대응 방안 마련, 2단계 사업(6개소) 추진 방향 가이드라인 마련 및 개선 대책 논의, 중앙·중외·일곡 등 대형 공원 국비 지원 추진사항 설명 및 향후 대책 논의 등도 연말까지 마쳐야 한다. 한편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날 광주시청에서 열린 간부회의를 통해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고, 광주다운 해법 제시를 기대한다”면서 “최대 보존 원칙, 중앙공원 등 3대 대형공원은 국가공원 지정, 민간개발 형식도 공공성 확보와 도시공원 기능 최대한 유지 등 3대 원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민주성지, 대북교류 이미지와 연결 정체성 정립해야”

### 광주전남연구원 제시

광주·전남의 대북교류 방향은 민주성지 이미지를 대북교류·통일 선도 이미지와 연결해 지역의 정체성을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독재·민주화 운동 성지를 자임하는 지역민들이 ‘평화로운 남북통일을 선도한다’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부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성열 광주전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30일 ‘광전리더스 INFO’에 실은 ‘지방 차원 대북교류의 중요성과 전망, 그리고 광주·전남의 추진방향’이란 연구보고서에서 지역 차원의 대북교류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박 연구위원은 광주·전남의 대북교류를 위한 대북 창구를 복원·개설하고 민간 간 협력체계를 재구축하는 등 대북 관련 거버넌스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와 전남은 각각 지원조직과 인력

을 배치하고 ‘남북협의회’ 등 민관 협조의 체계를 갖춰야. 또 조례에 의거해 광주 42억원, 전남 34억원을 확보하는 등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대북교류 정책에 발맞추려면 기존 1개 계로 운영되는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지자체의 전문성·책임성 확보, 광주와 전남의 통일 인식 제고사업 연대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박 연구위원은 제안했다. 특히 광주시가 계획 중인 남북한 에너지 개발 공동사업, 양곡 등 스포츠·문화분야 대북교류 활성화와 전남의 평양 콩 발표공정 재건 등 대북사업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회복에 기여하려면 정부 대북정책에 부응하면서 국제적 대북제재를 준수해야 한다”며 “지역 주민의 공감과 철학적 투명성으로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전남도 출연기관 14곳 중 11곳 경영평가 향상

###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3곳 ‘가’

전남도 산하 출연기관 14곳 중 11곳이 경영 평가에서 전년보다 좋은 성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출연기관 14곳의 지난해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이 ‘가’ 등급을 받았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5개 기관은 ‘나’ 등급을, 복지재단 등 6개 기관은 ‘다’ 등급을 받았다. 기관장 성과계약평가에서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중소기업지원센터·여성플라자·신용보증재단·광주전남연구원 등 5곳이 ‘우수’ 등급을 받았고, 나머지 기관장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14개 기관 중 11곳이 경영실적과 기관장 성과계약 평가 모두에서 전년보다 향상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도는 이번 평가 결과의 후속조치로 평가 등급에 따라 출연기관 임직원 성과급을 10~150%로 차등 지급하고, 기관별 경영평가 결과보고서에서 제시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0월까지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경영평가 결과를 내년 출연예산 편성에도 반영해 등급별로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문규주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산하 출연기관이 도민을 위한 책임 경영을 하고 실질적 경영개선 대책을 실행하도록 주기적으로 지도·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11월)과 전남개발공사·전남여성플라자(내년 1월) 기관장들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연임과 관련해 이번 경영평가 어떻게 반영될 지 주목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5·18광주진실전’ 일일 해설사 나선 윤장현 시장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30일 오후 5·18민주화운동 현장 수업차 광주시청 1층 ‘이! 워르겐 힌츠페터, 5·18광주진실전’을 찾은 광주공고생 50여명을 상대로 일일 해설사로 나섰다. 이날 윤 시장은 “여기까지 찾아줘서 반갑고 자랑스럽고 고맙다”고 인사말을 전한 후 학생들에게 사진들을 일일이 설명해줬다. 윤 시장은 “80년 5월 독일 제1공영방송 일본 특파원으로 있던 힌츠페터 기자가 당시 고립된 광주에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와 촬영함으로써 참혹했던 광주의

진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다”며 힌츠페터 기자가 ‘푸른 눈의 목격자’로 불리고 있는 이유를 설명했다. 수업에 참여한 이재용(2학년)군은 “모두가 침묵하고 주저할 때 광주에서 목숨을 건 기자정신으로 진실을 전하겠다고 말한 힌츠페터가 존경스럽다”며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힌츠페터를 비롯한 외신기자들의 기록을 ‘특파원 리포트’라는 책으로 만들어 최초로 알린 윤장현 시장이 직접 설명해주니 더 실감나고 감동스러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꿈을 안고 미래를 펼치자

- 5년 연속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 지정
- 3년 연속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최우수 S등급
- 2년 연속 NCS거점센터 대학 지정
-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최상위 A등급
- 2주기 광주·전남 최초 고등직업 교육품질 인증대학
- 3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 A등급(간호학과, 유아교육과)
- 한국간호교육평가인증원 간호교육인증대학

입 학 문 의 : 062)958-7511~4  
 입시홈페이지 : <http://ipsi.ghu.ac.kr>

## 광주보건대학교